

3/ 국학의 메이지 유신

복고의 착종으로부터 신도를 창출하기까지*

배관문



신사본청(神社本庁)

배관문(裴寬紋)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일본사상사, 특히 에도 시대 국학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 역사와 문화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宣長はどのような日本を想像したか: 『古事記傳』の「皇國」』(笠間書院, 2017), 『동아시아의 문화 표상 I·II』(공저, 민속원, 2015·2017), 역서로 『일본인의 사생관을 읽다』(청년사, 2015), 『모노노 아와레: 일본적 미학 이론의 탄생』(공역, 모시는사람들, 2016)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4/ILBI.2018.19.070>

1. 문제 제기: 『동트기 전』을 출발점으로

막부 말기에서 유신기 국학(國學)의 향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역사소설 『동트기 전』(夜明け前)이 있다. 근대 낭만주의 시인이자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이 히라타 국학에 경도되어 있던 자신의 부친을 실제 모델로 하여 주인공 아오야마 한조(青山半藏)의 일생과 그를 둘러싼 인간군상을 그린 대작이다. 시대는 1853년 흑선 내항부터 유신 정부가 안정되는 1886년까지의 격동기이며, 주요 무대는 기소지(木曾路) 마고메(馬籠)¹의 역참이다. 2부 구성의 장편소설 줄거리를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왕정복고 사상에 도취해 유신에 기대를 걸었던 한조가 국학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메이지 세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좌절한다는 내용이다.

『동트기 전』은 1929~1935년에 걸쳐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메이지 유신을 바라보는 1930년대 작가 도손의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와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국학에 대한 기술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동트기 전』에 점철된 국학 관련 구절들을 실마리로 하여 메이지 유신과 국학의 문제를 생각해보려 한다.² 막부 말기 일본 사회에 모토오리 혹은 히라타 국학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당시 국학자들은 메이지 유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유신 정부에서 근대적 제정일치 국가 건설의 구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국학 사상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흔히 이야기되는 유신 초기 히라타 국학의 패배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근대 국학의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여기에 얹혀 있기 때문이다.

1937년 5월 문부성에서 출판된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에서 말하듯,³

1 지금의 기후현(岐阜県)에 해당하는 곳으로, 교토와 에도를 잇는 중요한 가도(街道)에 위치한다.

2 근년에는 역사학자 미야지 마사토의 연구 등 이 소설의 배경을 철저히 역사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宮地正人, 『歴史のなかの『夜明け前』: 平田國學の幕末維新』, 吉川弘文館, 2015. 또한 국내 연구 가운데 임성규, 「『동트기 전』과 국학」, 『일본문화학보』 15, 한국일본문화학회, 2002 등은 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소설 속에서 언급되는 국학 사상에 주목한 바 있다.

3 “국학은 문헌에 의한 고사고문(古史古文) 연구에서 출발하여 복고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고도(古道)·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전』(古事記傳)으로 대표되는 국학은 과연 ‘대일본제국의 국체’를 명확히 밝혀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이 글은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에 근세 국학이 오늘날 거론되는 정도로 큰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막부 말기의 국학: 노리나가는 유신을 환영했을까

『동트기 전』 제1부 12장에 보면, 혁명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아오야마 한조의 머리맡에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저서 『나오비노미타마』(直毘靈)가 놓여 있다. 히라타 아쓰타네 사후 문인으로 입문한 한조는 국학의 대선배인 노리나가 학문에 심취해 있다.

수많은 패업(霸業)의 허위, 국가 쟁탈, 권모술수와 교활한 지혜, 제도와 도덕의 가면 등을 『나오비노미타마』에서는 비웃는다. 호조(北條), 아시카가(足利)를 비롯하여 오다(織田), 도요토미(豊臣), 도쿠가와(徳川) 등의 무가(武家)에 대해서는 명확히 쓰여 있지 않으나,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이 나라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대대로 천황의 정치는 곧 신(神)의 정치였다. 거기에는 저절로 신도(神道)가 있었다고 가르친다. 신도란 도(道)라는 말조차 없었던 ‘자연’(自然, 오노즈카라)이라고도 가르친다.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모토오리 선생의 『나오비노미타마』이다. 이 기쁨을 알라는 듯 언어 탐구에서 시작한 고대의 발견을 상세히 보고한 것이 웅이 삼십여 년의 세월을 들인 『고사기전』이다. ‘나오비’(直毘)는 곧 ‘나오비’(直

유신(惟神, 간나가라)의 대도(大道)를 역설함으로써 국민정신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바가 지대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전』 같은 것을 그 제일로 들어야 하겠으나, 히라타 아쓰타네 등도 유신의 대도를 설하여 국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실천에 옮겼다. 도쿠가와 말기에는 신도가·유학자·국학자 등의 학통이 지사들 사이에서 뒤섞이고 존황사상은 양이설과 합쳐져 근황지사를 일어나게 했다. 참으로 국학은 우리 국체를 명징(明徵)하고 이것을 선양하는 데 힘써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文部省 編, 『國體の本義』, 内閣印刷局, 1937, 78쪽.

び)로, 저절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옛말이다. 그 영력(靈力)은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잘 부수고 잘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국학자의 행동은 그로부터 생겨난다. 옹이 말하는 복고는 갱생이요, 혁신이다. 덴메이(天明)·간세이(寛政) 연간에 일찍이 여명을 고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옹이 보여준 것이야말로 참된 혁명으로의 길이다.⁴

『나오비노미타마』에 제시되어 있는 상고의 발견과 ‘복고’는 다른 아닌 ‘혁명’에 이르는 사상이라고, 무명 국학자의 입을 통해 말해진다. 이윽고 근대를 맞이하는 ‘여명기’에 『나오비노미타마』가 어떤 이들에게는 왕정복고를 꿈꾸는 하나의 지침서로 이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오비노미타마』는 1767년 노리나가가 유학자들과 도(道)에 관한 논쟁을 벌이며 간행한 저서인데, 『고사기전』 제1권을 간행하면서 그 서론으로 재이용한 것이다. 특히 ‘한의’(漢意, 가라고코로) 배척 사상이라는 방법론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나오비노미타마』를 교재로 삼아 제자들에게 직접 강석하기도 했다. 1766년에 시작한 『젠지 모노가타리』 전편 통독과 강의를 마친 후, 1774년 10월 16일을 시작으로 2, 6, 10이 붙은 날짜의 밤마다 강석을 행하여 11월 30일까지 이어졌다. 그가 자신의 저서를 강석에 사용한 예는 이때가 유일하다.⁵

노리나가는 평생에 걸친 고전 연구를 통해 국학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으나, 결코 새 시대의 혁명가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상가였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유언장에 남기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모토오리 가문의 보리사(菩提寺)였던 주쿄지(樹敬寺)에서 불교식 장례를 치르도록 지시한다. 단 자신의 유해는 장례식 전날 밤 야

4 島崎藤村, 『島崎藤村全集』 8卷, 筑摩書房, 1981, 339쪽. 이하 권수, 쪽수만 약기한다.

5 다나카 고지는 『나오비노미타마』에서 일본과 일체화된 노리나가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저서를 스스로 해설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확장된 자기애의 발로라고 지적한다. 田中康二, 『本居宣長』, 中央公論新社, 2014, 111쪽.

마무로산(山室山) 속 뒷자리에 몰래 가서 묻은 뒤, 다음날 주교지 본당까지는 빈 관으로 장송을 치러 달라고 당부한다. 가족과 제자들에게 이른바 밀장(密葬)을 부탁하는 모습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의식이나 행동을 매우 경계했던 그가 세간의 이목을 의식하여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면서 학문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⁶

『답문록』(答問錄)에도 “선악사정(善惡邪正)의 차는 있다 해도 유교도 불교도 도교도 모두 넓게 보면 그때그때의 신도(神道) … 유교로써 다스려야 할 일은 유교로써 다스려야 하고, 불교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불교로써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모두 그때그때의 신도이기 때문이다.”⁷라고 했다. 이렇듯 오랫동안 관습으로 굳어진 것들은 설령 그것이 자신이 비판하는 유·불교식이라 하더라도 성급히 고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었다. 본래 도(道)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만년에 『고사기전』 완성 후 제자들의 요청으로 집필한 고학(古學) 입문서 『우히야마부미』(うひ山ぶみ)에도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무릇 아랫사람은 좋은 싫든 그때그때 윗사람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고도(古道)의 뜻이다. 나는 이처럼 생각하기에 집안에서 모든 조상 제사, 부처에 대한 공양, 승려에 대한 보시도 선대로부터 해온 대로 그저 세간의 풍습과 다름없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 쓸 따름이다. 학자는 그저 도를 탐구하고 명백히 하는 것만을 책무로 삼아야 한다. 제멋대로 도를 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충분히 고대의 도를 생각하고 밝혀서 그 취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깨닫도록 해야 한다. 기록으로도 남겨 설령 오백 년 천 년이 지난 후에라도 때가 되어 위정자가 이를 행하여 천하에 널리 베푸는 세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6 배관문, 「두 개의 무덤, 하나의 시신」,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편, 『죽음 의례와 문화적 기억』, 모시는사람들, 2015.

7 大野晋·大久保正 校訂, 『本居宣長全集』 1卷, 筑摩書房, 1968~1993, 527~528쪽. 이하 권수, 쪽수만 약기한다.

나의 뜻이다.⁸

특히 학자의 본분을 강조하며 도를 밝히되,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라는 그의 언설은 지나치게 피지배자 시점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가 1787년 기슈번(紀州藩)의 번주 도쿠가와 하루사다(徳川治貞)에게 헌상한 정책 제안서인 『비본 다마쿠시게』(秘本玉くしげ)⁹를 보면, 사사로이 도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정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온 일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대부분 그대로 놔두는 편이 좋으며, 대개 새로운 일은 성급하게 벌이지 않는 게 좋다. … 대체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새로운 정책을 내기보다는 예전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최상이다.”¹⁰

종종 노리나가를 천황주의자로 오해하지만, 그에게 도쿠가와 치세와 천황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쇼군은 천황의 통치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즉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이 그의 지론이다. 『동트기 전』의 한조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리나가 사상이 이른바 ‘왕정복고’나 ‘폐불훼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단, 이와 같은 경향을 노리나가 사상에 대한 오독(誤讀)의 수용사라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같이 그저 후대의 왜곡된 읽기라고 노리나가를 구제할 의도도 없다.

막부 말기에 돌입하여 『나오비노미타마』가 갑자기 주목받으며 중요한

8 『本居宣長全集』 1卷, 10~11쪽.

9 당시 계속되는 기근과 물가 폭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기슈번주 도쿠가와 하루사다는 영내 지식인들에게 경제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노리나가는 국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마쿠시게』에 정리하여, 고도론에 기초한 정치원리를 기술한 『별권 다마쿠시게』와 함께 바쳤다. 별권은 노리나가의 문인으로 오와리번(尾張藩)의 가신이었던 요코이 지아키(横井千秋)가 서문을 붙여 1789년에 출판함에 따라 일찍부터 널리 유포되었다. 반면 본권은 노리나가가 생전에 출판을 엄격히 금했는데, 노리나가 사후인 1851년에 『비본 다마쿠시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판되어 외부에 알려졌다. 『비본 다마쿠시게』에는 화폐경제의 폐단, 관리들의 뇌물 수수 관행, 재정 감독관 문제, 백성들의 잇키에 대한 근본 원인 등 날카롭고 대담한 발언도 보이지만, 대체로 국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책이 제시되기보다는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원론적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10 『本居宣長全集』 8卷, 354쪽.

사상서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1855년 국학자 오쿠니 다카마사(大國隆正)는 『나오비노미타마』에 상세한 보주를 단 『직비령보주』(直毘靈補注)를 간행했다. 여기에서 다카마사는 이국선의 왕래를 ‘신의’(神意)라고 단정하며, 노리나가 저작 중에 특히 『나오비노미타마』를 읽어야 하는 필연성을 외국과의 접촉에 의해 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고 외국인에게 신도의 본질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후기 미토학(水戸學)을 대표하는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는 1858년 『독직비령』(讀直毘靈)을 저술했다. 『나오비노미타마』를 비판할 목적으로 쓰인 저술이지만, 그렇다 해도 막부 말기 『나오비노미타마』의 수용과 유행이라는 현상에는 변함이 없다.

노리나가의 고도론(古道論)이 메이지 유신의 왕정복고라든지 후의 국가신도 같은 방향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혁명을 꿈꾸는 이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책으로 읽힐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본 다마쿠시게』의 제안 중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깊이 숭경할 것과 전국의 신사를 성대하게 모실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저 전국의 다이묘들이 조정을 깊이 외경하고 돈독하게 존경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이 공의(公儀)가 정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조정은 오늘날 천하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히 세간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 때문에 누구나 마음으로는 조정을 귀히 여겨야 함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자연히 외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무릇 우리나라 조정은 신대부터 특별한 유래가 있어 외국 군왕에 비할 수 없다. 모든 만민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각별히 감사하는 것이 도리임은 별권에 적은 대로다. ... 이는 곧 다이쇼군(大將軍) 가문에 대한 충근(忠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이쇼군이란 천하에 조정을 가버이 여기는 자들을 정벌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동조신어조(東照神御祖=도쿠가와 이에야스) 신께서 이루신 대업의 큰 뜻이다. 무운장구, 영내 상하안정, 오곡풍양을 기원하는 일로는 조정에 대한 숭경만한 것이 달리 없다. 조정을 숭경하는 것은 아마테라스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로서 천신지기의 가호를 돈독히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전국 신사를 등급에 따라 조정이 관할하여 모셨고 각 지방의 작은 신사도 그 지방의 수령이 삼가 받들어 제사 지냈는데, 지금은 천하의 일을 다이쇼군 가문에서 관장하고 있어 전국 각지 신사에 대해 조정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만큼 각 지방을 다스리는 분들이 각 지방 신사를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 그런데 중세의 오랜 전란에 의해 전국 신사들이 크게 황폐해지고 제전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형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다. … 오늘날 대부분의 다이묘들이 영내의 신을 제사 지내는 양상은 전국 시대 무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소홀하다. 나라가 번영하고 다이묘들이 성대한 세력을 갖게 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건대, 신사를 많이 세워도 좋을 만한 형편인데도 신국(神國)에 걸맞지 않게 신사가 쇠락한 상태는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다.¹¹

이렇게 볼 때 노리나가는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메이지 유신의 결과를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 전면 서구화라는 방침 또한 노리나가라면 ‘그때그때의 신도’라며 환영했을 수도 있다. 학자는 위정자가 제대로 도를 행하기까지 오백 년 후, 천 년 후를 기약해야 한다고 했던 노리나가에게 유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

18세기 말부터 막부 말기에 걸쳐 국학은 크게 변모하고 있었다. 대규모 문인조직 형성과 신기신앙(神祇信仰)으로의 경도라는 면에서 선구적 국학자는 역시 모토오리 노리나가였다. 노리나가의 사숙(私塾)인 스즈노야(鈴屋)는 상층 조민과 농민을 중심으로 문인 수가 총 491명에 달했다.¹² 문인 수가 급증한 것은 노리나가 사후로, 스즈노야의 문인조직과 활동은 사실상 양자 모토오리 오히라(本居大平)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사기전』을 비롯한 노리나가 저작의 출판은 유력 문인들의 자금 후원

11 『本居宣長全集』 8卷, 366~367쪽; 367~368쪽.

12 스즈노야의 문인 기록으로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校本『授業門人姓名録』」(鈴木淳 他 編, 『本居宣長と鈴屋社中: 『授業門人姓名録』の総合的研究』, 錦正社, 1984에 수록)이다. 본서에는 스즈노야에 입문했음이 분명한데 문인록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부까지 따로 정리되어 있다.

으로 비로소 가능했다.

히라타 아쓰타네는 이부키노야(氣吹野)라는 문인조직을 형성했다. 당초 에도에서의 강의가 주요 활동이었기 때문에 문인조직은 에도 조닌이 중심이었는데, 가즈사국(上總國)·시모우사국(下總國)으로의 여행을 계기로 상층 농민 가운데서도 많은 문인들이 나왔다. 이처럼 간토(關東)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을 획득한 아쓰타네에 대해, 그 지역 신직의 집주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던 요시다가(吉田家)와 시라카와가(白川家)가 아쓰타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이부키노야의 문인 수는 막부 말기에서 유신기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쓰타네 사후에 당주를 계승한 히라타 가네타네(平田鐵胤)에 의한 바가 크다. 아쓰타네 생전에는 문인이 5백여 명이었으나 사후에는 1300여 명을 넘었다. 문인들의 도움으로 행해진 저서 출판 활동도 주로 아쓰타네 사후에 이루어졌다. 이부키노야의 문인들은 아쓰타네의 핵심사상인 영혼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모순을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개항으로 대외적 위기의식이 고양되자 이들은 사회적 모순을 지역사회 내부보다 국가적 차원으로 받아들였고, 아쓰타네의 학문은 이윽고 존황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이해되었다.¹³ 시나노국(信濃國, 현 나가노현)과 미노국(美濃國, 현 기후현 남부)을 중심으로 무사 및 그 주변인들이 문인이 되었고 이들은 반막부 운동에 참여했다.

횡단적인 문인조직에 의해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 속에서, 운동에 분주한 문인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전개했다. 히라타 문인의 중진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활동한 야노 하루미치(矢野玄道)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존황을 통해 히라타파와 시라카와가가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가운데, 시라카와가의 학사(學師)가 된 하루미치는 교토에서 양가의 접점이 되었다.

13 이부키노야의 사상적 경향이 영혼론(靈魂論)에서 존황론(尊皇論)으로 점차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기시노 노부히코의 논의를 참조. 岸野俊彦, 『幕藩制社會における國學』, 校倉書房, 1998.

3. ‘복고’의 착종

1) 히라타파 국학의 국가 구상

『동트기 전』에는 ‘복고’라는 표현이 무수히 반복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젠무 중흥’(建武中興)이 아니라 반드시 ‘진무 창업’(神武創業)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조의 귀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교토에 있는 문인들한테서도, 나고야에 있는 유지들한테서도, 이이다(飯田) 방면의 뜻있는 사람한테서도 들었다.

“왕정복고는 겐무 중흥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진무 창업까지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 소리야말로 그가 듣고자 기다려왔던 것이다. 많은 국학자들이 꿈꾸는 고대 복귀의 꿈이 이렇게 실현되는 날이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모토오리 옹이 남긴 저서에 암시하고 있는 무가 시대 이전까지 복고를 추구하는 기운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은 아마도 막부 타도 운동의 선봉에 있는 조슈(長州)의 지사들에게조차 의외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¹⁴

“잘 보게.”라고 말하는 마사카의 눈이 빛났다. “우리들은 서로 십 년 후를 기약했네. 이렇게 빨리 국학자를 인정해줄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허나 이 대정의 복고는 겐무 중흥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돼. 진무 창업까지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해. 그런 주장이 나온 것도 저 다마마쓰 언저리겠지. 복고는 서로의 신조니까 말이야. 하지만 자네, 복고가 복고인 건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 점에 있는 걸세.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능한 건 복고가 아니야. 아쓰타네 선생의 저술 같은 건 꽤나 널리 읽혔지. 허나 자네도 보게. 그 결과는 뭐가 『고사기전』이나 『고사전』을 쓴 사람의 진의인지도 모르는 채로 다들 그냥 지나

14 『島崎藤村全集』8卷, 354쪽.

쳐버리지. 아무리 어제의 새로움은 오늘의 낡음이라지만, 이런 조류가 급한 시세라도 이젠 너무 심하잖아.”¹⁵

전자는 앞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제1부 12장에 보이는 한조의 생각이 다. 후자는 제2부 9장 히타라 문인의 선배로 한조의 분신과도 같은 구레타 마사카(暮田正香)와의 대화 장면이다. 마고메라는 지역에 매여 있는 처지의 한조와 달리 ‘대범한 행동가’로 묘사되는 마사카는 유신의 공로자로서 중앙정부에서 잠시 활약했다가 좌천되어 부임지로 가는 도중 한조를 방문했다. 여기서 한조 등이 노리나가의 고대론을 ‘복고’ 운동의 기치로 이해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학자의 입장에서 ‘복고’의 시점이 재차 강조된다는 점은 주목해도 좋다. ‘진무 창업’이라는 기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68년 1월 3일(게이오 3년 12월 9일)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막부’의 폐지와 ‘조정’의 인사 제도 혁신이 발령되었다. 이른바 왕정복고의 대호령(大號令)이다. 왕정복고의 대호령은 정권의 전환을 주도한 공가(公家)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국학자 다마마쓰 미사오(玉松操)에게 의견을 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는 다마마쓰 미사오가 오키니 다카마사의 사상에 입각하여 이와쿠라 도모미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그런데 ‘왕정복고’와 ‘진무 창업’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신도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사카모토 고레마루가 지적하듯, 복고라고 해도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구체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진무 창업에 기초한다는 것은 신정부가 제시하는 제도와 정책이 고대 율령제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¹⁷ 비슷한 맥락에서 근년에 정치학자 가루베 다다시는 ‘진무 창업의 시점에 근거하여’라는 어구를 ‘복고’와 ‘유신’이 공존할 수 있었던 ‘매직워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¹⁸

15 『島崎藤村全集』9卷, 202쪽.

16 무라오카 츠네즈구, 박규태 옮김, 『일본 신도사』, 예문서원, 1998, 227쪽.

17 阪本是丸, 『明治維新と國學者』, 大明堂, 1993; 阪本是丸, 『國家神道形成過程の研究』, 岩波書店, 1994.

18 荻部直, 『「維新革命」への道』, 新潮社, 2017; 荻部直, 『日本思想史への道案内』, NTT出版, 2017.

‘섭관 및 막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왕정’으로 ‘복고’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섭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율령국가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관직의 명칭이나 조직 면에서 옛 태정관 제도가 부활한 형태를 취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데 불과했다. ‘복고’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가제도 창출이라 할 만한 대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자체가 출발하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은 대개혁을 정당화하여 폐번치현에 의한 중앙집권제, 신분제 해체, 호적에 의한 국민의 일원적 파악, 화폐와 조세제도의 전국 통일 등 일련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복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작용한다. 진무 천황이 나라를 세운 시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실제로는 새 왕조를 열 듯 새로운 제도를 만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서양식 국가제도 도입에 따른 체제 혁신이 모두 정당화되는 셈이다.

‘진무 창업’이라는 기점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히라타과 국학자 야노 하루미치와 후술하는 쓰와노과 국학자 오키니 다카마사의 국정 제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히라타 문인 가운데 대표적 이론가였던 야노 하루미치는 왕정복고의 대호령 직후 「헌근첨어」(獻芹詹語)를 조정에 건의했다.¹⁹ 국학자가 작성한 정치 강령의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왕정복고를 기뻐한 히라타과 국학자들이 그린 신국가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건백서의 핵심은 제사(祭祀), 인정(仁政), 무위(武威)였다. 이 세 가지 강령에 따른 세세한 제언이 개조식으로 서른 가지 이상 제시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제정일치의 실현이다. 천조 열성의 정치이념은 인정(仁政)에 있으며 이것이 노리토(祝詞)를 비롯한 천황과 조정의 고대 제사에 약속되어 있다. 인민을 애무(愛撫)하는 것은 황조(皇祖) 천신(天神)이 남긴 뜻으로, 이에 복종하는 자는 너그럽이 받아들이고 저항하는 자는 무위로서 응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정일치는 결코 천황이 친히 제사하거나 정치하는 것을

19 芳賀登·松本三之介 校注, 『國學運動の思想』, 日本思想大系 51, 岩波書店, 1971, 548~585쪽.

의미하지 않는다. 이즈모(出雲)·기이(紀伊)의 국조(國造), 이세(伊勢)의 대신궁사(大神宮司)와 와타라이씨(度會氏), 우사공(宇佐公), 아소공(阿蘇公) 등 후지와라씨에 의해 억압된 고대 신직 가문의 후예들을 발탁하여 정치에 등용하는 것이다. 또한 신기관(神祇官)에는 나카토미(中臣)·우라베(卜部)·인베(忌部)씨를 넣으라는 등 고대의 문벌을 존중하고, 나아가 각 지방의 재지 명망가를 중시하라고 한다.

고대 율령제하에서 신기관에 있었던 천황을 수호하는 팔신전(八神殿) 재흥에 이어, 조화삼신(造化三神)을 모시는 신전, 명계를 관장하는 대국주신(大國主神)을 모시는 신전, 남조의 충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구성된 대궁(大宮) 신설도 건의한다. 거기에서 행해지는 대제(大祭)에는 천황이 행차할 뿐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참가를 허락하여 국민 교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또한 황실을 고대와 같이 하려면 황족 수를 늘리고, 신분을 삼공(三公) 위에 두며, 황후는 황족 중에서 골라야 한다. 천황 즉위 때 행하는 대상제(大嘗祭)는 제사용 곡물을 바칠 신전(神田)이 되는 유키(悠紀)·스키(主基)를 중세 이후처럼 오미(近江)·단바(丹波) 두 지역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점을 쳐서 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강령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행정 절차보다 국학교 대학을 교토에 설립하자는 안으로 귀결된다. 신국가 교학의 기본은 유학이 아니라 황학(皇學)이 되어야 하므로 궁중에 대학교(大學校)를 설립하여, 공경(公卿)·대부(大夫)·사(士) 이하 서민을 삼등급 혹은 사등급으로 계급을 나누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궁중에 따로 빈원(貧院)·유원(幼院)·교원(敎院)·숙원(宿院)을 마련하여 나라 시대의 빈민 구제 제도를 부활시키자고 한다. 국학자의 주장이 대학 설립으로 귀결되는 점은 흥미롭다. 국학의 시조 가다노 아즈마마로(荷田春滿)도 1728년 에도 막부에 『창학교계』(創學校啓)라는 화학교(和學校) 창설의 청원서를 썼다. 실제로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알려지는데, 어쨌든 아즈마마로는 중국의 학문만 존숭하는 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화학(和學)의 흥륭을 위해 우선 과제로 학교 설립을 호소했던 것이다.

2) 왕정복고의 실현과 좌절

『동트기 전』의 한조도 메이지 유신에 기대를 걸었다. 소설 속 히라타 문인들은 왕정복고가 실현된 것을 만민이 평등한 새로운 고대의 도래라 믿고 기뻐했다. 제1부 11장 “젠무 중흥은 윗사람의 지시에서 나온 것으로 아래에 있는 만민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이를 뒷받침한다.

선인들이 말하는 상고란 무엇인가.··· 여러 국학자 대선배들이 창조한 위업은 옛날의 고대로 돌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대를 발견한 점에 있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조는 새로운 고대를 인간의 지혜가 더욱 발전해가는 ‘근대’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 새로운 고대는 중세와 같은 권력만능의 껍질을 벗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왕(王)과 민(民)밖에 없었던 상고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그 출발점에서 재고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가 다다른 해석에 의하면 고대로 돌아가는 것은 즉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즉 새로운 고대를 발견하는 것이다. 중세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를 맞이해야 한다.²⁰

이처럼 『동트기 전』에서 한조가 신봉하는 히라타 국학은 왕(王)과 민(民)만이 존재했던 단계인 고대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그들은 왕정복고가 만민의 마음, 민초의 사이에서 일어난 진정한 복고라고 생각한다. 즉 지배층인 무사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겐무 중흥이 아닌, 왕과 민만이 존재하는 먼 고대의 진무 천황 창업 시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복고라고 생각한다. 이는 당시 천황을 옹립하여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근왕파·존왕파의 뜻과 일치하여, 히라타파 문인들을 반막부 운동에 동참하게 만든다.

한조는 노리나가의 가르침을 ‘자연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고대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인간성 해방과 만민 평등사상을 이해한다. 바꿔 말하면 한조에게 노리나가라는 존재는 ‘근대인’의 선구나

20 『島崎藤村全集』8卷, 290쪽.

히라타파 여러 선배 학자들이 제정일치를 위해 고생한 것도, 그것을 대신하여 조직된 신불합동 대교원(大敎院) 같은 정부 교회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날 운명임을 알게 된 것도 그 짧은 날들이었다. 여기까지 어일신(御一新)의 길을 연 모토오리 옹과 같은 이에 대해서조차 많은 관리들이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²²

이어 제2부 13장에서 “복고의 길은 끊어졌고 히라타 일문은 이미 멸망했다”²³고 단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신을 수호하기 위해” 선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보리사에 방화하고 나서 끝내 광사(狂死)에 이른다.

그때가 되어 돌아보니 옛 촌장으로서, 또 옛 본진 상인으로서의 한조의 생애도 모두 뒤로 물러나 있었다. 모든 것이 다 뒤로 물러갔다. 홀로 그의 생애가 종언을 고했을 뿐 아니라, 유신 이래 메이지의 무대도 그 19년경까지를 하나의 과도로 크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보를 품은 어제의 보수에 지치고, 보수를 품은 어제의 진보에도 지쳤다. 새로운 일본을 찾는 마음은 이윽고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나 봉건시대를 매장하는 것만 알 뿐, 아직 진정한 유신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랄 수도 없는 불행한 어스레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²⁴

『동트기 전』의 종장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문장이다. 요컨대 진정한 유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근대화 과정을 살았던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 일본 근대의 향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작가 도손의 의도이자 이 소설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선행 연구의 다수가 도손의 근대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사의 중심은 도손의 근대성 혹은 반근대성에 대한

22 『島崎藤村全集』 9卷, 238쪽.

23 『島崎藤村全集』 9卷, 289쪽.

24 『島崎藤村全集』 9卷, 360쪽.

논란이었다.²⁵

이 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도손의 『동트기 전』이 보여주는 이상과 같은 내러티브에 의해, 이른바 히라타파 국학의 패배와 좌절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이다.

막부 말기 국학의 최대 유파는 분명 히라타파였다. 실제로 유신 정부가 신기관을 부흥시켰을 때 당초 판사직(判事職)에는 야노 하루미치와 히라타 가네타네가 취임하여 신기 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윽고 정계의 중추에서 배제되었다. 이들은 정치의 중심이 이미 도쿄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토만을 고집했으며, 도쿄에서의 로비 활동도 거부했다. 신기관은 보다 현실적이고 온건한 중도 성향의 후쿠바 비세이(福羽美静)와 가도와키 시게아야(門脇重綾) 등 쓰와노파(津和野派) 국학자가 주류가 되었다.

정계에서 밀려난 히라타파 국학자들이 그 다음에 힘을 기울인 것은 국학교 설립이었다. 유신 정부는 야노의 예상보다 1년 반 늦은 1869년 8월에 태정관 제도를 골격으로 하는 대학교를 도쿄에 개교했다. 하지만 국학을 중심으로 하는 황학계와 한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학계의 대립으로 연말에는 기능 마비에 빠졌다. 다시 1870년 2월에 제정된 대학 규칙에는 황학계·한학계 양쪽 주장이 모두 열린 탓에 이번에는 양학계·황한학계의 대립 구도가 되어 이조차 폐쇄되기에 이른다.

4. ‘신도’의 창출

1) 쓰와노파 국학의 국가 구상

쓰와노번(津和野藩)은 규모로는 비록 작은 번에 불과했지만, 번주 가메이 고

25 근년에 이루어진 국내 연구로 다음의 논고 참조. 이현옥, 「『동트기 전』 고찰: 아오야마 한조의 비극에 나타난 일본의 근대화」, 『동일어문연구』 19, 동일어문학회, 2004; 김계자, 「『동트기 전』을 둘러싼 장편소설 공방, 그리고 ‘일본’」, 『일본학연구』 39,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아울러 본 특집호의 서영채, 「강박과 히스테리 사이, 메이지유신과 동아시아의 근대성」 참조.

레미(龜井茲監)가 일찍부터 국학자 오쿠니 다카마사의 영향을 받아 번내에서 사사(社寺) 개혁을 하고 신불분리령과 신장제(神葬祭) 보급 등 신도부흥책을 추진했다. 이후 가메이는 신기사무국 판사직을 맡아 쓰와노파 국학자들을 신기사무국 및 신기관 요직에 임관시킬 수 있었고, 번내에서의 경험을 살려 신기 행정에 수완을 발휘했다.

쓰와노파 국학의 사상적 연원이 된 오쿠니 다카마사는 히라타 국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히라타 학파와는 별도로 행동한 인물이다. 쓰와노번 출신의 다카마사는 아쓰타네에게 국학을 배우고 나가사키에서 난학을 배운 뒤 탈번하여 교토에서 학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독교의 힘을 깊이 인식한 그는 일본이 서구 열강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기반을 신도에서 찾았다. 후에 쓰와노번 번교 교수가 되어 후쿠바 비세이 등을 가르쳤고, 1868년 3월 신기사무국 권판사(權判事), 1871년 10월에는 선교사 어용괘(御用掛)에 임명되었다.

고대 율령제를 표방하는 태정관 제도에서 특히 신기관을 메이지 신정부 기구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구상은 다카마사에 의한 것이었다. 메이지 직전인 1867년 12월 그는 「신기관본의」(神祇官本義)라는 의견서를 신정부에 제출했다. 「신기관본의」에는 “조정에서 천신을 모신 것은 진무 천황에서 비롯되었고, 지기를 모신 것은 스진 천황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신기관의 기원을 진무 천황이 ‘대효’(大孝)를 위해 처음 세운 것이라고 한다.²⁶

『일본서기』 진무 천황 4년 기사에는 확실히 “천신을 모심으로써 대효를 말한다”, “그리하여 황조 천신에 제사지냈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황조 천신은 사실 다카미무스비 신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다카마사는 ‘大孝’ 두 글자를 ‘부모를 따르는 것’(オヤニシタガフマコト)이라 훈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먼 조상을 따르는 것’(トホツオヤニシタガフマコト)이라 훈독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신기관에서 행하는 진혼제의 주요 취지를 혼백, 대충대효(大忠大孝), 천신지기로 요약한 것은 이러한 다카마사의 해석에 따른

26 安丸良夫·宮地正人 校注, 『宗教と國家』, 日本近代思想大系 5, 岩波書店, 1988, 3~4쪽.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충효’ 윤리가 천황 제사와 직결되었다.

앞서 살펴본 야노 하루미치도 천하제일의 정무는 ‘천신지기에 대한 제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정치기구의 근본을 신기관 제사에 둔 것은 국학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직접적으로는 미토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825년에 성립하여 막부 말기 지사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의 『신론』(新論)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제사는 정치가 되고 정치는 종교가 된다. 정치와 종교는 지금까지 둘로 분리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백성은 오직 천조(天祖)를 공경하고 천운(天胤)을 모시는 것을 알 뿐이며, 향하는 곳이 일정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이로써 백성의 뜻을 하나로 합치고 천인합일하게 한다. 이것이 제왕에게 의지하여 사해(四海)를 보존하는 것이자, 조종(祖宗)의 나라를 세워 그 근본을 연 대략이다.²⁷

인용문에 나오는 ‘천조’(天祖)는 천황의 조상신 중에서도 아마테라스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천(事天) 개념과 시조(始祖) 개념을 합체하여 황손(皇孫)에 의한 천하 지배의 정당성을 보장하도록 재구성된 말이다. ‘천운’(天胤) 역시 단순히 천자의 후사를 뜻한다기보다 천과 동격인 천조의 후예를 뜻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된 말이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다.²⁸ 아이자와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일의 방법은 민심 통합이고, 민심을 통합하는 제일의 방법은 제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교적 귀신제사론의 맥락에 히라타 국학이 제기한 사후 안심과 구제론의 과제를 모두 흡수함으로써 고대의 제사적 국가라는 정치신학으로 재구축한 것이다.²⁹

실제로 메이지 원년 이후 국가 차원에서 신사 창건이 계속되었다. 겐무 중흥 관계의 천황·황족·공신을 모신 신사, 타 지방에 모셔져 있던 천황이

27 今井宇三郎 他 校注, 『水戸學』, 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3, 56쪽.

28 子安宣邦, 『國家と祭祀: 國家神道の現在』, 青土社, 2004, 71~88쪽.

29 고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옮김, 『귀신론』, 역사비평사, 2006, 27~29쪽.

나 상황을 새로 모신 신사, 황손 니니기노미코토와 진무 천황을 모신 신사, 개항장이나 개척지에 아마테라스 신을 모신 신사, 폐리 내항 이후 순국한 사람들에 대한 초혼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가토 기요마사 등 무장을 모신 신사, 국학자 및 막부 말기의 근왕지사를 모신 신사가 연달아 창건되었다. 각각의 창건신사를 들여다보면 충신을 매개로 인심을 수렴하려는 목적과 천황의 신격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신사로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신사 건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국한되었다.³⁰ 이에 따라 주로 기기(記紀) 신화에 등장하는 신, 황통에 관계된 신, 충신과 열사 등의 인신(人神)을 국가에서 공적으로 제사 지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그 밖의 다양한 신불에 대해서는 속신이고 음사라고 배척했다. 여러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 국체신학이 일본인의 신 관념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³¹

막부 말기까지 불교와 음양도 또는 민간신앙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던 궁중 제의 및 행사가 전부 신도식으로 바뀌는 것도 위의 동향에 조응한다. 황령(皇靈)에 대한 제의가 불교식 장례에서 신도식으로 바뀐 것은 메이지 원년 12월 25일에 있었던 고메이 천황(孝明天皇)의 삼주기 제사부터다. 궁중에서도 신불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신궁과 천황의 연관성을 국가적 제사에서 확인하고, 관폐사(官幣社)·국폐사(國幣社) 제도에서 이제 신궁은 그 정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후쿠바 비세이와 가도와키 시게아야 등 쓰와노파 국학자들은 천황이 직접 주재하는 궁중제사 정비에 특히 주력했다. 히라타파의 경우는 시라카와가와 요시다가 등 종래의 집주가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쓰와노파가 히라타파를 대신하여 신기관 간부가 되자 전국 신사에서 집주가의 제사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태정관 위에 두었던 신기관 기구 자체를 해체하는

30 박수철, 「明治初 ‘創建神社’ 건립의 의미와 傳統」, 『민주주의와 인권』 10,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31 야스마루 요시오, 이원범 옮김,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 소화, 2002(安丸良夫, 『神々の明治維新: 神佛分離と廢佛毀釋』, 岩波書店, 1979); 島蘭進, 『國家神道と日本人』, 岩波書店, 2010; 박규태, 『일본 신사의 역사와 신앙』, 역락, 2017.

론을 표명하면서도 천황제와 표리일체를 이루듯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 국학의 합리화 및 단일화 방향을 상징하는 것의 하나로 요시오카 노리아키(吉岡徳明)의 『고사기전략』(古事記傳略) 전 12권에 주목해보려 한다. 『고사기전략』은 1883년에서 1886년까지 단속적으로 간행되었다. 메이지 초기 『고사기』 주석서의 대표작이자 『고사기전』 수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종 거론되지만, 이 주석서의 내용을 검토한 연구 성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서명 그대로 본서가 방대한 『고사기전』 44권에 대한 요약일 뿐, 독창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시오카의 범례에 따르면 “『고사기전』을 간략히 하고, 스즈노야 어른이 미처 고찰하지 못한 것은 『고사징』(古事徵)과 『고사전』(古事傳)을 비롯하여 그 밖의 고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도 이렇다 여겨질 때는 주를 달았다.”³³라고 했다. 히라타 문인답게 노리나가 설에 일부 아쓰타네 설을 보완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 더욱이 요시오카 자신의 독자적인 설을 개진한 곳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시오카는 본래 천태종 계열의 승려였는데 아쓰타네의 저서에 공명하여 메이지 원년에 환속한 뒤 국학자가 되었다. 각지의 신직을 거쳐 신도사무국(神道事務局) 교수가 되었는데, 메이지 6년부터 14년까지 교도직(教導職)으로 있다가, 후에 수사관(修史館)에 적을 두었다. 말하자면 학자라기보다 메이지 관료로서 활동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초기 제정일치를 기치로 내건 태정관 포고와 신불분리령으로 시작된 신도국교화 정책은 신기관에서 신기성을 거쳐 교부성(教部省) 설립, 3조교칙의 포고와 대교원(大教院) 설치 등으로 이행되었다. 이 전개과정이 신교의 자유 및 신도사상의 다양성 등의 문제와 얽혀 내실은 분규 상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⁴ 요시오카는 1873년 정토진종(淨土眞宗) 혼간지(本

33 吉岡徳明, 『古事記傳略』 上卷, 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8, 6쪽.

34 다카시로 고이치(高城幸一), 「신국사상과 메이지정부의 국가신도(神道)화 정책」, 『일본사상』 11, 한국일본사상학회, 2006; 박삼현, 「메이지초년의 국체론: 교도직(敎道職)의 3조교칙(三條敎則)을 중

願寺)과의 승려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와 벌인 유명한 폐불훼석 논쟁에서 신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폈던 인물이다. 1875년 진종 4과가 분리하면서 대교원이 폐지되고 정부는 신불 합병 포교를 금했다. 1877년에는 교부성도 폐지되고, 내무성에 사사국(社寺局)이 설치되어 신도와 불교를 관할하에 두었다. 이러한 경위는 신도국교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후퇴를 의미하는 듯하나, 이른바 국가신도 체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대 신기제도가 정비되어가는 단계였다.

메이지 종교정책 전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878~1880년까지 신도사무국 신전에 모시는 제신(祭神)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제신 논쟁은 전국의 신직자들을 끌어들이며 신도계를 대립국면으로 만들었고, 1881년의 조칙에 의해 수습되기까지 내부 분열을 반복했다. 당시 요시오카는 제신 논쟁 조정자의 한 명으로 진력했다. 이 무렵 이즈모파의 중심멤버였던 모토오리 도요카이(本居豊穎) 등은 논란의 타개 방향을 신도 비종교론에서 찾는다. 제신 논쟁으로 드러난 신전 해석의 혼란, 사분오열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신도계 지도자들은 제사로서의 신도를 국체와 연결 짓는 국가신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882년 신도사무국을 대신하여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가 도쿄에 설립되었다. 1882년 신관과 교도직의 분리, 1884년 교도직 제도의 완전 폐지, 이로써 제사와 교화와 학문이 분리된 정교분리·교학분리 형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즉 신사신도는 제사, 교파신도는 교화, 그리고 황전강구소는 학문을 맡는, 신도의 기능 분화였다.

신도를 종교에서 분리하고 신관의 교육양성기관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황전강구소의 사명을 업고 요시오카는 모토오리 도요카이의 협력하에 『고사기전략』을 출판하게 된다. 『고사기전략』 권두에는 “황전강구소 교사 모토오리 도요카이”가 검열하고 “황전강구소 부총재 고가 다케미치(久我建通)”가 지은 서문이 붙어 있다. 히가시 요리코가 지적하듯, 본서는 단순히 요시

심으로, 『일본학보』 74-2, 한국일본학회, 2008.

아키 개인의 저서를 넘어 황전강구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따라서 『고사기전략』은 메이지 초기 『고사기전』이 어떻게 읽혔고 거기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료이다. 신도 행정의 중심적 위치에서 서구 근대문명과 격투를 벌이며 국학 이념과 신도 논리를 재구축하려 했던 요시오카를 통해 노리나가 국학이 수용되고, 그것이 황전강구소라는 교육의 장에서 공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고사기전략』에는 『고사기전』의 『나오비노미타마』가 통째로 삭제되어 있다. 『나오비노미타마』는 『고사기전』 사상을 집약하여 고도론을 전개한 총론인 만큼, 이 부분의 전면 삭제는 자칫 『고사기전』 그 자체의 부정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노리나가가 한문의 윤색이라 하여 상세히 다루지 않은 『고사기』 서문에 대해서는 부록을 달아 증보하기도 했다.³⁶ 범례에는 “서문의 주해는 지나치게 간략하여 밝히기 어려운 구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략(傳略)의 뜻에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상세히 풀도록 한다.”³⁷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천지만물의 생성을 음양오행설로 설명하는 서문에 대해 노리나가가 ‘한의’라 비판했다면, 요시오카는 신(神)·유(儒)·불(佛)·양(洋)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본문에서도 태초의 모습은 신의 뜻에 의한 것으로 노리나가가 불가지론(不可知論)이라 했던 부분들이 『고사기전략』에서는 철저히 부정된다. 황천국 신화에서 인간사의 길한 일과 흉한 일이 교대로 작용하는 이치를 이끌어낸 부분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마가쓰비 신의 작용으로 해석하는 부분 등 노리나가의 독창성이 보이는 부분은 하나같이 삭제되어 있다.

35 이바라키 요시유키는 『고사기전략』이 제신 논쟁 이후에 구상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초고가 있었다고 지적함으로써, 히가시 요리코의 이러한 자리매김과 의미 부여에 대해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바라키의 의의제기를 인정한다 해도 히가시의 전체 논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東より子, 제7장 「吉岡徳明『古事記傳略』: 國家神道體制確立過程の一齣」, 『國學の曼陀羅: 宣長前後の神典解釋』, ぺりかん社, 2016(1994); 荊木美行, 「吉岡徳明『古事記傳略』について」, 『史料』 198, 皇學館大學史料編纂所, 2005.

36 吉岡徳明, 『古事記傳略』 上卷, 45~48쪽.

37 吉岡徳明, 『古事記傳略』 上卷, 6쪽.

아오야기 아키오가 작성한 해제에는 “노리나가의 색채를 잃었다”는 표현이 되풀이해서 쓰여 있을 정도이다.³⁸ 노리나가의 학설이든 아쓰타네의 학설이든 아마도 국학자의 독자적인 주장은 신관을 양성하는 초급 주석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각 학파의 개별 주장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통 인식 범위 안에서 그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사기전략』은 제신 논쟁 이후 국학의 합리화·단일화 방향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즉 하나의 메이지 건국신화 혹은 기원신화가 수렴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5. 끝나지 않는 근대 국학

시마자키 도손이 1930년대에 들어와 『동트기 전』을 집필하게 되는 배경에는 근대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며 ‘일본적인 것’을 회구하기 시작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에 국학이 다시금 각광을 받으며 부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다.³⁹ 서구화 일변도의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국학은 사라져버린 듯하지만, 근대의 일본 담론 안에서 오히려 근대 국학이 재생을 거듭한 점은 지적해도 좋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여태껏 강조되어온 것은 『동트기 전』의 아오야마 한조처럼 메이지 초기 히라타파 국학의 사상적 한계와 현실적 좌절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시기 폐불훼석과 같은 극단적 배타주의나 쇼와 시기 초국가주의적 황국사상의 전범으로 지목되는 아쓰타네는 그 이미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노리나가로부터 아쓰타네로 이어지는 근세 국학이 근대의 국가신도로 그대로 직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글도 근세 국학이 반드시 신도 내셔널리즘의 원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38 青柳(阿部)秋生, 「古事記傳略解題」, 吉岡徳明, 『古事記傳略』上卷, 3~55쪽.

39 역사학자 나리타 류이치의 비판적 분석을 참고로 제시해둔다. 成田龍一, 『増補 〈歴史〉はいかに語られたか: 1930年代「國民の物語」批判』, 筑摩書房, 2010(2001).

입장을 같이한다.

노리나가 국학을 쇼와 전쟁기까지 포함한 일본 근대 내셔널리즘의 원류로 보는 것이 통설적 이해라면, 그에 대해 대체로 현대의 여러 국학 연구자들은 노리나가를 적극 변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과시즘 시기를 노리나가의 왜곡된 수용사라고 말한다. 이 글의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하다. 다만 메이지 국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노리나가나 아쓰타네의 후계자들이 현실정치 노선에서 배제되고 국학이 실패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권력을 장악한 쓰와노파 국학자들을 국가 신도의 원흉으로 돌리는 것이 된다. 그 비판이 노리나가를 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파벌이나 승패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싶다. 왜냐하면 히라타파도 쓰와노파도 그것은 전부 노리나가를 거쳐 성립된, 혹은 시대에 부응하여 변용된 국학의 전체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히라타파 국학의 좌절이 메이지 초기 국학자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의식이나 국가 구상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 메이지 사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설령 그 실현된 모습이 그들이 꿈꾼 방향과는 다소 달랐을지언정, 국학의 파벌 문제나 학문적 성격의 변질 같은 것으로 결론짓는 데는 찬동하기 어렵다. 즉 여러 갈래의 착종을 거듭하며 국학 사상을 일원화해서 수렴해간 것이 근대 국학이며, 그 결과 창출된 것이 일본 고유의 국가적 ‘신도’였다고 할 수 있다.